

제6실 | 염직 | 광동 평직비단 변과 변족 조각

이번 염직 전시의 테마는 <광동 평직비단과 변족 조각>입니다. 호류지에 전해진 변 중에서 대표작에 해당하는 광동 평직비단 변과 광동 능직비단 변 등을 전시합니다. 또한 평면 전시 케이스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평직비단으로 만들어진 평직비단 변을 비롯하여 여러 색의 평직비단 변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변이란?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깃발입니다. 그 모양은 사람의 몸처럼 머리에 해당하는 변두, 몸통에 해당하는 변신, 발에 해당하는 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25: 광동 평직비단 변

변신의 윗부분에 여러 색으로 물들인 적색 바탕 다테가스리(세로로 스친 듯한 무늬가 있는 천)를 사용하였습니다. 7세기에 제작된 호류지 전래품에 많이 보이는 데 반해, 8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쇼소인의 염직품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반도나 중국에서 전해진 귀중한 직물을 이 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N-304-2: 광동 능직비단 변

변두, 변신, 변족을 거의 모두 갖춘 귀중한 변입니다. 세로로 긴 직사각형 구획인 평에 다테가스리 광동 비단조각과 무늬를 짜넣은 능직비단이 남아 있어서 광동 능직비단 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테두리의 여러 곳에 금동으로 만든 둥근 쇠붙이가 달려 있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N-319-38: 평직비단 대변 조각

다양한 색으로 꾸며진 대형 변입니다. 지금은 변신의 평 하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상당히 크고 세로로 긴 평을 갖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체 수리한 결과, 변족 한 가닥에는 사누키 지방에서 공납으로 바쳐진 평직비단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N-319-11: 평직비단 변 조각

N-319-13: 평직비단 변 조각

N-319-20: 평직비단 변 조각

N-319-28: 짙은 녹색 바탕 쌍룡, 당초, 꽃잎이 네 개인 꽃과 큰 원무늬 능직비단 변족 조각

능직비단으로 만들어진 번족의 일부입니다. 무늬는 큰 원무늬 안에 몸통을 뒤트는 용맹한 용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였고, 원무늬 바깥에는 당초무늬와 작은 꽃무늬를 들렀습니다. 능직비단은 빛이 비치는 정도에 따라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보는 각도를 바꿔 가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N-319-49: 적색 바탕 평직비단 조각(이카루가테라 명문)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선명한 붉은색 평직비단의 일부입니다. 호류지의 염직품 중에서도 특히 적색, 자색, 감색 등은 마치 방금 염색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발색이 좋고 보는 이를 놀라게 합니다. 또한 한쪽 번족의 윗부분에는 호류지의 별칭인 ‘이카루가테라(鵜寺)’라는 명문이 적혀 있습니다.

○다양한 색의 번족 조각

번족 부분만 남아 있는 천조각입니다. 적색, 청색, 황색이라고 한 마디로 말해도 진하고 열음에 따라 다양한 표정이 드러납니다. 아스카시대에서 나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낸 염색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N-319-51-2: 감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

N-319-51-3: 옅은 남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

N-319-57-1: 청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

N-319-61-1: 적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

N-319-67-2: 황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

N-319-81-2: 황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

N-319-98-3: 감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

N-319-137: 황색 바탕 평직비단 번족 조각